

꿈의 그라운드 “심장이 터져도 좋았다”



이홍재의 세상만사 주필

어릴 적 시골 마당에서 돼지 오줌보(방광)에 바람을 넣은 공을 발로 툭툭 치며 놀았던 기억이 있다. 축구공이 없거나 드물던 시절, 옛날 세대들은 실제로 그렇게 돼지 오줌보 공으로 축구를 했다.

공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했다. 먼저 돼지 오줌보에서 오줌을 빼내고 밑재대 같은 것으로 바람을 넣은 뒤 꼬트머리를 묶으면 된다. 하지만 이런 풍선 모양의 형태로는 너무 가벼워서 방향 틀 뿐, 제대로 공을 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오줌을 다 빼내지 않고 어느 정도 남겨두곤 했다. 오줌을 남겨 놓은 채 바람을 넣으면 무게감이 생겨 드리블이나 패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국내에 축구가 소개된 것은 1882년(고종 19년)이었는데, 돼지 오줌통 축구의 역사는 당연히 훨씬 더 고대로 올라간다.

삼국유사만 봐도 김유신과 김춘추가 ‘축국(蹴鞠)’을 즐겼다는 기록이 나온다. 이때 사용한 공이 바로 돼지나 소의 오줌통에 바람을 넣어 만든 것이었을 것이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이 바야흐로 결승전만을 남겨 두고 있다. 파죽지세의 프랑스와 천신만고 끝에 올라온 크로아티아의 한판 승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월드컵 열기도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두 걸출한 스타를 이번 월드컵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31세가 된 메시와 33세의 호날두는 이번 월드컵이 마지막일지 모른다. 누가 그랬던가. 전설은 막을 내리고 시간은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호날두의 멋진 인생 스토리

그들이 떠난 지금, 이제 열아홉 살 음바페(프랑스) 같은 어린 친구에게나 기대를 걸어야 하나. 왕년의 차범근보다 더 빠른 스피드로 측면을 돌파하는 음바페는 준결승에서 쓸데없는 지연 플레이로 비난을 받았다. 이에 비해 호날두는 폭격 면에서도 티의 추종을 불허한다. 불우했던

어린 시절의 역경을 딛고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됐다는 점에서 그는 충분히 존경받을 만하다.

참고로 포르투갈의 호날두(33)는 브라질의 전설 호나우두(42)와 동명이인이다. 로마자로 적어 놓으면 철자가 같은데 한글 표기는 달리 한다. 우리나라 외래어 표기법이 발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같은 포르투갈어인데도 이름(Ronaldo) 중간에 있는 ‘엘(I)을 포르투갈에서는 ‘르’ 받침으로 발음하지만 브라질에서는 ‘우’로 발음하기 때문에 각각 호날두와 호나우두가 된 것이다.

내가 호날두를 좋아하게 된 것은 밤을 새워 가며 위성중계를 통해 만날 수 있었던 멋진 ‘가위차기(오버헤드킥) 골’도 골이지만, 인터넷에 떠다니는 그의 멋진 인생 스토리를 접한 뒤부터다. 축시 아직 못봤을 독자를 위해 여기에 잠시 소개해 본다.

“어릴 적부터 가난이 너무나 싫었지만 도망치고 또 도망쳐도 결국 가난은 나를 잡아먹었다. 나의 아버지는 알콜 중독자였다. 형은 마약중독자였다. 가난한 우리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은 청소년 일을 하는 우리 어머니였다. 청소년 일을 하는 어머니가 난 너무 부끄러웠다.” 여기까지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 이제 그는 어떻게 해서 축구를 시작하게 됐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어느 날 빈민가 놀이터에서 혼자 휴식장을 치던 나에게 보인 것은 저 멀리서 축구를 하는 동네 친구들이었다. 내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나를 축구에 끼워 주지는 않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았다. 우연히 날아온 축구공을 찼을 때 난 태어나 처음으로 기쁨을 넘어선 희열을 느꼈다.”

그리고 그는 말한다. “어머니, 저도 축구를 하고 싶어요. 축구 팀에 보내주세요.” 절없는 아들의 부탁에 어머니는 당황했다. 자신들의 형편으로는 비싼 축구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기에. 그렇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꿈을 무시할 수 없었다. “겨우 저렴한 가격으로 팀에 들어올 수 있었던 나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패스 한번 받지 못하고 조명이 꺼지고 모두가 돌아간 뒤에는 혼자 남아 축구공을 닦아야 했다. 시간이 흘러 난 꿈에 그리던 그라운드에 데뷔하였다. 내가 바라다 보았던 축구장. 난 이 무대에서 죽을 각오로 뛰고 또 뛰었다. ‘심장이 터져도 좋다.’ 그렇게 나의 데뷔전이 끝났다.”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어느 날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나를 이적시키고

싶다며 직접 나에게 전화를 건 사람은 세계 최고의 구단 중 하나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퍼거슨 감독이었다. 통화를 끝낸 후 나는 흐느끼며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어머니, 더 이상 청소년 일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수화기를 잡고 울고 계셨다.”

공도 등글 삼도 등글등글

호날두는 최고 몸값의 축구선수인 만큼 실력도 출중하지만, 그가 한 해 기부하는 금액이 한국인 5천만 명이 한 해 기부하는 금액보다 많다고 한다. 그는 소말리아에 300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으며 아동 질병 퇴치와 아동 구호 운동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호날두에게는 운동선수들에게 아주 흔한 문신 하나도 없다고 한다. 문신을 하면 현혈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니 이 얼마나 감동적인가.

이쯤 되면 호날두와 호날두가 있는 축구를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텔레비전에서 ‘오 필승 코리아’ 가락이 흘러나오자 ‘오 미스 코리아’라고 열심히 따라 불렀다는, 축구를 전혀 모르는 아줌마라고 해도 말이다. 뉴욕타임스 칼럼니스트 데

비드 브록스는 ‘89분을 잘 싸워도 한방으로 질 수 있는 것이 축구’라 했다. 인생도 그럴 것이다. 어느 시인이 말했지 않나.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래도 아직 쓸쓸함에 젖기에 가을이 너무 멀다.

흔히들 ‘공은 등글다’고 한다. 축구 경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이는 1954년 스위스 월드컵 당시 서독 팀 감독이었던 제프 헤르베르거가 헝가리와와 예선전에서 크게 패한 뒤 처음으로 한 말이다. 그는 우여곡절 끝에 결승전에서 다시 만난 헝가리 팀에 3대2로 극적인 역전승을 하면서 ‘공이 등글다’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했다. 하긴 이번에 크로아티아가 결승까지 올라오리라 예상한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는가.

어찌 됐든, 인간은 분신 등그런 공(球)을 좋아한다고 한다. 동물들도 역시 둥근 공을 좋아한다. 우리 속담에 ‘모난 돌이 정 맞는다’라는 말이 있다. 축구를 보면 서, 월드컵을 즐기면서, ‘우리 모두 공처럼 둥글둥글 살자’고 말한다면 젊은이들이 ‘완대 같은 소리’하고 있다고 수군대려나? 그래도 어쩌랴. 나이가 든 탓인지 ‘모 나게 살아서 좋을 것은 없다’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전남도 승진·전보 인사

전남도는 12일 공로연수, 명예퇴직, 시·군 부단체장 전출입에 따른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직무대리였던 송경일 동부지역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했으며, 이기춘 대변인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해 공무원 교육원장으로 발령 났다.

관광문화체육국장에는 김명원 영광부군수가 임명되고, 보건환경연구원장에는 박중수 지방환경연구관이 승진해 임용됐다. 후임 대변인은 최형열 일자리정책지원관이 맡는다.

전남도는 부단체장으로 광양부시장 방옥길(관광문화체육국장), 곡성부군수 김선호(농업정책과장), 보성부군수 유영관(관광과장), 장흥부군수 한동희(해양항만과장), 함평부군수 나윤수(사회복지과장), 영광부군수 강영구(자치행정과장),

신안부군수 박경곤(식품의약과장) 등을 인선에 발령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13일자로 단행된다.

전남도는 과장급 이하 후속 인사는 일자리정책본부 신설 등 조직개편을 거쳐 다음 달 중순까지 마칠기로 했다.

인구 10만명을 2년 이상 유지해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격상된 나주 부시장 인사와 관련하여는 나주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대로 ‘원포인트’ 인사를 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이번 인사에서 조직의 안정과 균형에 중점을 두고 결원 직위에 후임을 인선하는 최소한의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단체장은 해당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통해 도와 시군의 상생협력과 소통능력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전남도 신임 국장 프로필

술선전화형 리더십·계층간 신망 두터워

송경일 동부지역본부장

성실하고 합리적이며 온화한 성품과 술선전화형 리더십으로 상하 계층간 신망이 두터운다. 평이다.

▲고흥(59) ▲광주대 행정학과 ▲신안부군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국내유치부장 ▲경제동영상과장

역동적 추진력 ... 조직 운영 활력 넘쳐

이기춘 공무원교육원장

역동적인 추진력과 활력이 넘치는 조직운영으로 후배 직원들로부터 존경받는 지휘관으로 평이 높다

▲광주(59) ▲방송통신대 법학과 ▲나주부시장 ▲노인장애인과장

진취적 사고 ... 기획력·추진력 강해

김명원 관광문화체육국장

진취적인 사고와 탁월한 기획력으로 업무추진력이 강하며 합리적인 성품으로 조직내 신망이 두터운다. 평이다

▲담양(57) ▲전남대 행정학과 ▲영광부군수 ▲정책기획관 ▲관광과장

알립니다

‘전라도 영웅전’ 청소년 캠프

김환기 화백을 통해 본 신안의 미술 ... 20~21일 신안서

광주일보 전라도 정도 전년을 맞아 ‘전라도 1000년 인물열전’이란 연중 기획 시리즈를 인기리에 지면을 통해 연재하고 있습니다. 전라도를 빛낸 인물을 발굴해 이들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기념사업의 하나로 ‘청소년 캠프’를 운영합니다.

‘전라도 영웅전’이란 이름으로 운영하는 청소년 캠프는 전라도를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웅들의 삶과 정신을 강연과 유적지 순례라는 체험을 통해 직접 만나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될것입니다. 중·고등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 ▶ 주제 : 김환기 화백을 통해 본 신안의 미술
- ▶ 일시 : 7월 20일(금)~21일(토) 1박2일
- ▶ 장소 : 신안 국민체육센터 및 신안군 일원
- ▶ 모집인원 : 청소년 25명(선착순)
- ▶ 참가비 : 무료 및 봉사시간 지급(환경정화활동 2시간)
- ▶ 문의 : 010-5758-7189

■주최 : (사)지역미래연구원 ■주관 : 아모티움동조합 ■후원 : 신안군

광주일보

임야·삽니다

당일매입가능, 김태산. 010-9374-8585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수입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계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공장부지 매매” (급 매)



- 전남 나주시 문평면 옥당리 1397-13, 91-3
- 문평농공단지 6차선도로변 공장
- 대지 14,916.9㎡, 건물 998㎡(임대 741㎡, H빔 구조)
- 태양광발전소 99kW 설치(건물위)
- 공장, 창고, 사무실, 샤워장, 화장실 시설 구비

건물일부 보증금 2천만원/월 190만원 임대중

◆ 매매가 28억 ◆ (조정가)

인 하 건 설 (주)
010-3605-0214
062) 655-484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전북 순창군 북흥면 지선리 대지 433㎡ 3천만원
- 보성 문덕면 죽산리 대원사입구 택지조성된 곳 660㎡ 9천만원
- 장성 북이면 장성면 인근 전 2136㎡ 주택·창고적합 4700만원
- 곡성 삼기면 대지등 681㎡ 광주서 30분내 5천만원

주택·원룸·아파트

- 울산동 농성초건너면 리모델링완료 땅 144㎡ 2중주택 118㎡ 1억9500
- 화순 동면 땅 706㎡ 2중전원주택 상가주택·아파트와 교환원 2억6천

투자·매도·교환

- 나주 동강면 옥정리 영산강부근 전 3154㎡ 전원생활용 53백만원
- 무안 삼향읍 왕산리 2차선접 3874㎡ 식당·창고등 적합 5억3천
- 나주시 석현동 2차선접 2538㎡ 가든·창고등 적합 2억7천
- 상업지 나대지 전북 신대인 1213㎡ 목욕탕·양한방병원 최적 은행 3억6천 교환가능 5억 3천
- 북구 장동동 주거지역 땅 2925㎡ 은행 3억 매도 7억
- 울산동 양면도로접 2중 주거지 873㎡ 은행4억 매도 11억5천
- 금남로 5가역 대로접 상업지 364㎡ 16억
- 쌍촌동 소방도 땅 118㎡ 2중 상가주택적합 1억3천
- 영광 홍농읍 주거지역 5223㎡ 공사가 6700 매도 8700
- 북구 망월동 주거지역 1650㎡ 전원생활 등 적합 4억5천
- 수목정(장례) 허가지 남구 덕남동 임 6645㎡ 경관좋은 2억
- 함평역 건너 대로접 2중주거지 3192㎡ 다양이용도 2억6천

상가건물

- 동구 수기동 대지 152㎡ 3중 상가주택 292㎡ 매도 4억천
- 전북 부안군 번산면 도청리 땅 792㎡ 팬션 건물 867㎡ 은행 4억7천 매도 8억2천
- 동구 충장로5가역 수기동 대지 168㎡ 2중건물 투자에 좋음 3억8천
- 카센터적합지 농성동 대지 182㎡ 3중건물 297㎡ 현재운영중임 4억
- 농성역 부근 대지 973㎡ 건물 457평 공시지가 18억 매도 39억
- 나주시 땅 4045㎡ 건평 5893㎡ 증축해서 요양병원최적 69억
- 북동 5중건물 대지 562㎡ 건평 1637㎡ 임대생활적합 14억

☎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사주학의 대가

동광스님비법공개

40년 내공으로 완성한 사주학 비법을 공개합니다

- 사주역학 학당 개설 -

- 일시: 매월 첫째,셋째 목요일 6시
- 장소: 광주시 동구 대인동 한미쇼핑 2층 (일월사 포교원)
- 대상: 사주학, 역학에 관심 있는 분 누구나
- 학당에 참석하셔서 새로운 사주학의 비법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교원 (062) 524-8020
원 장 010-8024-1433